

수필쓰기 교육방법 연구

오정훈*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수필 쓰기의 방법으로 경험의 환기와 의미 부여, 구성과 상위인지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수필은 경험을 토대로 글쓴이의 개성적 인식이 반영된 글이며, 아울러 문학으로서의 성향을 동시에 갖는 것이기에 표현 방식으로서의 구성도 강조되어야 할 항목이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수동적인 차원의 경험 나열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차원에서의 조절과 점검 과정이 중요시되기에,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과 조절을 강조하는 상위인지의 개념 역시 수필 쓰기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 보았다. 모든 경험이 수필의 소재가 되지 만 모든 경험을 수필 속에 끌어들이 수 없을 뿐더러 경험 속에서 발견된 글쓴이의 독특한 인식적 묘미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매력적인 수필이 될 수 없기에 경험의 서열화와 재인식, 그리고 그것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인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본고는 수필 쓰기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교육 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수필 쓰기, 경험, 의미 부여, 구성, 상위인지

* 경상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I. ‘자아성찰’을 위한 수필 쓰기

문학의 하위 갈래로서의 수필은 시와 소설의 접점에 위치하면서도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처럼 압축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상징성이나 이미지를 통한 상상력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시는 서정의 극단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기에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자기화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이해 방식이나 정서로 재구성해 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렇기에 시의 본성은 세상의 질서에 화자나 작가의 사상이나 행위를 대입한다기보다는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재단(裁斷)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문학 양식(구인환 외, 1998b)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수필은 자기 인식의 확립 근거를 세상에 기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상의 질서를 토대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의미 있다 여기는 가치를 자기 쪽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필은 자기를 세계화함으로써 세계의 질서에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개인의 사회화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세계의 질서를 토대로 살피고 따지는 사회화 이전에 자신에 대한 성찰이 선행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수필에서의 성찰은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동화의 단계로까지 그 문제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출발은 자기 세계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선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필은 시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수필은 시문학처럼 자기 삶과 자기 정서(신재기, 2009; 류수열 외, 2014)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하지만 시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필은 자기를 넘어 타자이해와 사회성 확립이라는 좀더 거시적 안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개인적 삶보다 사회적 삶 쪽에 한층 기울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소설의 탄생이 근대 시민의식의 성장, 자본주의의 보편화, 리얼리티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현실과 이상의 합일을 극단으로 추구하고 이를 노래하던 서정시를 뒤로 하고, 갈등과 사건의 발생이 현존하는 구체적 현실에 주목함으로써 개인의 의식 세계에 안주하던 문학의 자장(磁場)을 사회적 현실의 차원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인간 개인의 삶에 주목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수필은 소설과도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필의 구성이 소설의 그것과 달라 치밀하고도 극적인 구성이나 극적 갈등과 사건의 전개가 다소 미미한 차원으로 묘사될 수도 있기에 근원적 동질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록 형식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수필은 소설처럼 현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하며 현실 속에 인간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아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문학(구인환 외, 1998a)임에는 분명하다. 그렇기에 수필 속에는

소설처럼 극적 구성이나 다양한 사건의 전개가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기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토대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필은 세상 속에서의 개인, 개인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성숙을 도모하고 있는 문학 양식이기에 자기 성찰을 위한 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수필은 특히 자기 삶에 비중을 두기에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시의 난해성이나 소설의 장황성을 극복하고 자기 성찰과 세상과의 소통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글쓰기는 자기표현이다. 글쓰기를 통해 인간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과정을 재성찰함은 물론 의의를 부여하는 단계(Flower 1993; 허만욱, 2009)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위인지를 활성화하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의식하면서 바람직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다잡게 되는 것이다. 글쓰기는 절실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현학적인 기교로서 자신의 삶과 무관한 상상이나 객관적 사실의 전달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 글 속에는 감동은 사라지고 무미건조함만 남게 된다. 따라서 수필 창작은 글쓴이 자신의 삶을 소재로 자기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진실함과 감동을 본원적으로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 수필 쓰기는 자기 삶을 주목한 성찰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읽는 이의 측면에서 보면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II. 수필 쓰기의 주안점

수필 쓰기는 결과 중심보다 과정 중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생들에게 특정한 소재나 주제를 제시하고 완성된 학생글을 교사가 살피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결과 중심적 방법으로는 수필 쓰기를 통해 성찰의 단계(정영길, 2002; 이재승, 2003)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글쓰기 방법과 과정에 대한 전모를 교사가 시범보이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실행 양상까지도 드러내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 과정이나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면 수필 쓰기를 교실 안에서 전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수필 쓰기가 이루어진고 하더라도 개요작성의 방법에 대한 안내 정도의 단편적인 교육적 처방에 머물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정도의 방법적 제시는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교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쓰는 것만으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는 입장이 강한 듯하다. 교과서 구성이 다양한 글을 실어 놓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글들을 써 보게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필 쓰기에서 주된 요소로 주목하고 지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학생들에게 수필은 무엇을 어떻게 써 나가야 하는지 단계별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수필 쓰기의 방법과 절차는 수필 문학이 갖는 특성을 통해 추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경험 발견’ 단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제재나 주제의 제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학생의 사고 활동, 창작 행위로 이어져 나간 것이 기존의 쓰기 방법이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과정에 익숙한 학생은 특정 제재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재나 주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를 통해 글쓰기로 나아가는 성향을 고집하게끔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수필 쓰기를 할 때는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삶의 경험(이오덕, 1996; 신재기, 2007)을 되짚어 보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할머니 댁에 방문했던 경험도 좋고 부모와의 뜻깊은 추억, 혹은 가슴 아팠던 슬픈 사연, 좌절과 희망의 경험들을 다양하게 되새기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가정환경이나 성향의 차이에 따라 박진감 있는 삶의 경험을 다양하게 가진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평범한 경험들만을 간직한 학생도 있을 것이다. 우여곡절을 가진 경험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학생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과거를 살피고 경험 속에서 새로운 정서와 의미를 되새겨 가는 것만으로 학생은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 효능감(김중신, 1997; 김승광, 2012)을 깨우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나와 남과의 관계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많고 다양한 자신의 들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간단한 몇몇 구절 정도로 표현해 보게 하는 것이다. 이때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적어 보게 함과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간단하게 메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험이 머릿속에만 맴돌 때와 그것이 활자화될 때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된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사실과 느낌, 생각으로 구분해 적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모호함은 좀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재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경험과 사실과 생각이 다채롭게 정리되었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험을 고르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한 편의 수필을 완성해 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강신재 외, 1993; 김진호, 2014)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해 나가야 하기에 그러하다. 가치 있는 경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학생의 삶에 좀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가치 있고 특별한 경험은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학생 자신의 가치 인식은 물론 행동 양상에도 커다란 힘이 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삶의 경험 발견’ 이후에는 ‘의미 부여와 구성’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수필은 문학과 비문의 사이에 위치하는 문학으로 인식된다. 어문문학이니 교술문학이니 하는

용어들이 모두, 수필이 갖는 문학과 비문학적 성향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필의 특성을 논할 때 수필은 철학적이고 심오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갈래라는 언급을 자주하곤 한다. 이와 같이 수필이 갖는 사변적 특징은 시나 소설과 달리 허구적 형상성 속에서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화자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문제삼고 전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수필을 창작하는 단계에서도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다시 곰곰이 따져 보면서 새롭고도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도 인식의 접근 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듯 특정한 경험에 대해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자신만의 문제의식과 인식적 틀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때도 자신의 특정 경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적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 부여한 결과들을 간단한 몇몇 구절로 정리하고 이를 지면에 표현해 봄으로써 과거의 경험은 현재적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내포한 경험으로 재조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는 글쓰기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경험과 생각을 어떻게 지면에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제 글쓰기 이전에 수행되는 ‘구성’은 지면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가치 있는 경험 내용을 토대로 사실과 생각, 그리고 정서를 표현해 나가기 위해 어떤 전개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에 해당한다. 문단은 몇 개로 구성할 것이며, 각 문단의 핵심 사항은 무엇으로 결정지을 것인지, 글의 흐름을 고려해 경험적 사실과 생각 및 정서를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 경험을 표현할 때도 독백으로 일관할 것인지, 경험과 관련된 사건에 주목하고 대화나 행동으로 묘사해 갈 것인지, 현재적 관점에서만 과거 경험을 바라보고 이를 표현할 것인지, 과거 경험 상황 속에서의 나의 생각과 지금의 입장의 차이를 부각시킬 것인지, 경험적 사실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데 주력할 것인지, 사실보다 의견과 정서를 좀더 심도 깊게 드러낼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지면의 전개도를 개괄적인 형태로 간단히 적어보는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구성’ 과정에서는 단순히 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구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의 형식, 내용의 측면에서 표현 효과나 표현 방식은 물론 태도와 관점 그리고 가치 인식과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의 밑그림을 세밀하게 짜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사실 이 구성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기에 몇 가지 방법적 안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내용의 전개에 주안점을 두고 배열하는 데 주력할 수도 있지만, 이를 좀더 세분화해 본다면 인과적 구성,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등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고적 방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극적 방법을 도입해 사건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피력해 나갈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수도 있고

미래의 상황까지도 포괄해 구성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구성 방식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숙지시키고 학생의 표현 역량이나 취향 따라 다각도로 글 모습을 배열하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밑그림으로서의 구성도(構成圖)를 작성해 나갈 때의 형식이나 방식 역시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낱말의 연쇄를 통해 글의 배열 순서를 드러낼 수도 있겠고, 낱말의 차원을 넘어 좀더 구체적인 수준의 구절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스케치 형식의 그림으로 구성해 나간다면 만화나 간단한 이모티콘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가능하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각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쓰기 전 단계로서 수행되는 구성의 과정이 글쓰기와 좀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써 나가는 중에도 구성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도 있으나 배열 방식을 정하는 구성의 과정이 막연하거나 불분명한 수준에 머문다면, 실제 글쓰기에서도 모호함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글감이나 제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생각을 명료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구성 단계의 작업이 좀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1> 과정 중심의 글쓰기 주안점

가치 있는 경험 발견		의미부여와 구성		상위인지 전략의 활성화
다양한 경험 환기 사실적 경험의 나열 가치와 정서의 환기 경험의 가치 서열화	⇒	경험의 가치 재인식 새로운 의미와 정서 발견 현재와 미래적 삶 관련 형식과 내용적 배열	⇒	계획과 준비 과정 점검 쓰기 전 단계의 보완 쓰기 과정에서의 재고 피드백을 통한 수정

‘가치 있는 삶의 경험 발견’과 ‘의미부여 및 구성’의 과정 이후에는 곧바로 글쓰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글쓰기를 위한 준비 과정의 전반을 다시 고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 발견, 의미부여, 구상의 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 학생 자신의 글쓰기가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이나 방향과 들어맞는지, 효율적인 글쓰기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놓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재점검하는 것은 신중한 글쓰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상위인지 전략의 활성화’를 통해 글쓰기의 계획과 준비 단계를 살피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위인지 전략의 활성화는 실제 글쓰기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지금 기술하고 있는 문장의 형식이나 내용이 선행 문장이나 문단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글의 주제나 정서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문장의 길이는 적절한지, 비문법적인 문장이나 표기법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준비 단계에서 작성한 구상도에 따라 글을 써 나가고 있는지, 글을 쓰는 중에 생각이나 느낌이 바뀌었다면 효과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어 적절히 표현

하고 있는지 등을 상위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쓰기는 맹목적인 작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상위인지 전략(김유미, 1996)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글쓰기 전반을 지속적으로 되돌아보고 글쓰기와 관련된 인지적 지식을 파악함은 물론 이를 실제 글쓰기 상황에서 인출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해 나가면서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수정하고 보완(가은아, 2011; 신윤경 외, 2015)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필 쓰기에서 필요한 인지적 지식은 수필 갈래의 특징은 물론 계획 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 생성 방법과 개요 작성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문단 구성과 내용 전개 방식 등 실제 글쓰기 작업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하는 형식과 내용 구성에 관한 지식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에 필요한 인지적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수필을 완성해 낼 수 없다. 여기에 지식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고 자신의 글쓰기의 선후를 살피 과정의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절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상위인지 전략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위인지 전략이 글쓰기의 준비와 실제 쓰는 과정 혹은 쓴 이후의 수정 단계(정덕현, 2015)에 거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수행해 나가더라도 학생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안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위인지 전략의 요체는 글쓰기와 관련된 제반 지식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실제 쓰기 과정에 적용해 나가는 절차적 지식과 그것의 활용 및 조정이다. 그러므로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적용하며 수정해 나가는가하는 방법적 안내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 편에서 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교육적 처방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상위인지 전략은 계획과 준비 과정에 대한 점검, 쓰기 전 단계의 보완, 쓰기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재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한 자기 조절과 수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에, 각 단계마다 학생들의 실천적인 수행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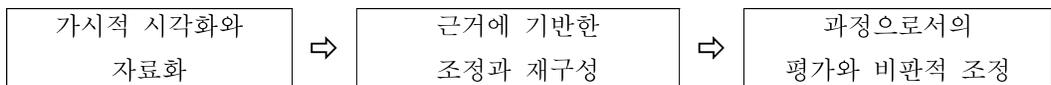
이를 위해 교사는 글쓰기 각 단계마다 필요한 방법과 전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시범을 통해 전체적인 과정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계획과 쓰기,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어떤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사고구술이나 스토리텔링의 형태, 혹은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의 양식을 빌려 심리적 진행 양상을 가시적으로 시각화하거나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의 결과를 ‘시각화’하고 ‘자료화’해 냄으로써 일련의 사고 과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낱말의 형태든 구절의 형태든 혹은 이미지나 영상 자료의 형태로든 쓸거리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된 후, 일차적 시각화 자료를 대상으로 ‘조정과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상위인지 전략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실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심리의 흐름에 그칠 수 있다. ‘어떤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어떤 주제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까,

경험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낱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경험과 관련된 항목들 중에서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경험을 표현한 구절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문법 질서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가,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앞뒤 흐름이나 글 전체의 구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글을 써 나가는 중에 경험과 관련된 새로운 의미 부여의 여지는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 줄 적절한 표현은 제대로 마련되고 표현되고 있는가,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글쓰기 지식은 무엇이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가, 글을 일차적으로 완성시킨 후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의도와 표현에 맞추어 흐름이 자연스럽게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를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에 답해 나가는 과정은 상위인지 전략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조정과 재구성’은 반드시 그 근거가 요구되고 글쓰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판단에 근거한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시각화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사전 시각 자료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물로 변형시켜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은 조정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상위인지 전략의 활성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신의 글에 대해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기 보다는 평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위인지 전략을 좀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 사실상 상위인지 전략은 ‘사고의 과정에 대한 사고’라는 의미와 평가적이고 비판적 사고의 전개 과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초안으로 완성되어 가는 자신의 글을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2> 상위인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



Ⅲ. 수필 쓰기의 사례와 분석

국어교육과 3학년 전공과목인 수필 지도론 시간에 앞 장에서 기술한 내용 요소와 방법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한 후 그 결과물을 받아 연구자가 제시한 방법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방법상의 유의미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었으며, 일회적인 교수법의 고안과 적용, 그리고 결과 도출에 그치지 않고 2년이라는 연구 기간 동안 시행된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소 높으리라 기대한다.

1. 가치 있는 경험 발견하기

수필 쓰기를 위해 시도되는 가치 있는 경험의 발견은 다양한 경험의 환기, 가치와 정서의 부여 및 재발견, 경험적 가치의 서열화가 주된 요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경험을 다양하게 떠올리게 하고 이러한 경험의 흔적들에 대해 학생들이 현재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이를 서열화해 봄으로써 쓸거리를 마련해 보는 단계인 것이다.

[학생글1]

①우리 엄마는 베이비시터, 즉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신다. 내가 10살 때부터 일을 하셨으니 대략 12년 정도 일을 하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집을 거쳐 간 아기들을 헤아려 보니 8명은 되는 것 같다. 보통 갓난 아기 때 와서 어린이집에 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고 어린이 집으로 간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으로 놀러오다 학교에 입학라고 나면 학원가라 바쁘기 때문에 간간히 전화통화를 하는 정도이다. (중략)

②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여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가까이서 아기를 지켜보니 아기와 부모, 즉 어른 사이의 사랑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사랑이 아니었다.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면 금방 짜증내고 칭얼거리고 너무 어리다보니 아기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아기가 생활을 하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어른은 아기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심하면 야단치기도 한다. 하지만 아기는 그 순간 짜증내거나 울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나?’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고 웃는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없는 웃음으로. 누군가 아기의 옆에서 울거나, 아니 우는 척이라도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아기의 옆에서 울면 아기는 금세 따라 입을 삐죽거리다가 울어버린다.

③그러나 아기가 자랄수록 이런 순수한 사랑이 점점 열어지는 것 같다. 지금도 우리는 아기였을 때는 저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텐데,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을 온전한 나의 기쁨으로, 누군가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략)

위 학생글은 ‘아기를 돌보는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삶 중에서 ‘아기’와 관련된 경험, 특히 사실적 경험을 집약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①문단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추론을 해 본다면, 학생은 매우 다양한 경험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고 정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아기와 관련된 경험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나열과 이에 대한 소재로서의 비중을 따지는 과정을 거쳐 선택된 경험일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비중을 12년 동안의 육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요약적으로 기술해 나감으로써 사실적 경험을 전면에서 부각시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이 자기 경험 중 육아와 관련된 인상적인 경험의 일반적 사실을 개관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아기에 관한 특정한 경험적 사실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글에 새로운 정서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②문단을 보면, 학생은 아기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내리사랑’이라는 또 다른 경험적 인식을 환기하고 이러한 기존의 인식에 반하는 아기와 관련된 새로운 경험을 재차 도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①문단의 도입부분에서 자신의 경험 일반을 언급하는 차원을 넘어 ②문단에서는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①문단과는 다소 색다른 경험을 글 속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야단 친 뒤 웃는 아기의 모습’, ‘함께 우는 모습’을 통해 학생은 ‘아기의 사랑’이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경험을 통해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기가 보여주는 이러한 용서와 배려, 그리고 공감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③문단을 통해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아기의 순수함이 전제된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 글의 학생은 분명 수필 쓰기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의 발견’을 충실히 수행한 후 글쓰기에 임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그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험의 환기, 사실적 경험의 나열, 가치와 정서의 환기는 물론 경험의 가치 서열화까지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글쓰기를 해 나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수필은 그 갈래의 특징상 사실적인 경험이 소재가 되며 그 속에서 글쓴이만의 독특한 정서와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환기하되 그 중에서 글의 일관성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고 엮어가면서 그 경험의 정서와 의미를 글쓴이의 목소리를 담아 기술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생글2]

①어느 날 신나게 골대에서 놀다가 떨어져 왼팔이 부러졌다. 그래서 나는 한참 김스를 하고 다녔고, 즐겁게 축구를 즐기는 친구들을 구경하기만 했다. 그러나 천방지축이었던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기에 팔에 김스를 한 상태로 나도 뛰겠다며 함께 달려 나가 축구를 했다. 그런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에 있을까? 친구가 찬 공이 정확히 왼팔에 맞은 것이다. 뼈가 완전히 붕괴 전이라 당연히 다시 부러졌고 다음 주면 김스를 풀겠다는 기대감은 운동장의 먼지가 되어 날아갔다. (중략)

②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팔씨름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덩치만 컸지 뼈가 굵거나 타고난 힘이 많지는 않았기에 친구들과 팔씨름을 하면 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뼈가 붕괴난 뒤에 왼팔로 팔씨름을 하면 이상하게도 쉽게 이기게 되었다. 그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한 번 부러진 팔은 다시 붙으면 전보다 더 강해진다고 들었다. 왼손으로는 이름 석 자도 제대로 못 쓰는 철저한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부러트리니 나니 항상 쓰는 오른팔보다 왼팔이 더 강해진 것이다.

③아마 살면서 겪게 되는 내적 외적 상처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처음 상처가 났을 때에는 아프고 쓰라려도 낫게 되면 흉터가 남을지언정 만져도 아프지 않다. 그러니 조금 부러져도 괜찮다. (후략)

위 학생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경험 중 ‘축구’와 관련된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 ‘골대’에서 떨어져 외상을 입고 재차 ‘축구’로 인해 팔의 치료를 지속해야 했던 경험을 ①문단에서 기술하고 있다. 학생은 축구와 관련된 두 번의 상처를 경험했던 사실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경험을 또 다른 사실과 확장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글의 의미를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왼팔 팔씨름에 대한 경험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경험에 새로운 의미와 정서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축구’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팔씨름’과 관련된 경험을 ‘상처’와 ‘성숙’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서열화하고 각각의 경험에 새로운 가치와 정서를 부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글에서도 수필 쓰기에서 경험에 대한 주의 환기에 다양한 경험의 나열과 그것의 서열화,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론적 정서적 재해석의 시도가 유의미함을 발견하게 된다.

①문단과 ②문단의 경험은 ③문단을 통해 일반화되고 좀더 직접적인 학생의 목소리에 의해 그 가치와 정서적 외연이 심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③문단에서는 실수와 상처에 대한 관대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은 ‘내적 외적 상처’라는 일반적 차원의 삶의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①문단과 ②문단에서 기술했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들을 포용하려함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도 경험에 대한 되살피기와 다양한 경험을 마련하고 그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 그 속에 전제된 가치와 정서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수필 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상처가 성숙의 전제가 된다는 일반적 차원의 교훈적 문구의 전달은 수필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형상화와 비유적 발상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환기하고 이를 통합해냄으로써 교훈적 메시지는 구체적 형상화로 거듭나게 되며 이는 수필이라는 문학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2. 의미 부여와 구성

학생들의 경험을 환기시키게 하고 그것들의 서열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경험을 결합하고 재구성해 나감으로써 한 편의 수필을 완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재인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확장적

으로 펼쳐 나간 후 글쓰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동일한 경험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경험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 역시 경험을 재해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과정은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새로운 의미나 정서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는 또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나 미래적 삶과의 연관 속에서 재고찰되고 새로운 정서적 의미를 획득한 심화된 글쓰기 자료가 될 것이다.

[학생글3]

①몇 주 전에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다. 보통 공상 과학 영화를 보고 나면 여운이라든지, 꼬리를 무는 생각의 가치를 쳐 본 기억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날만은 이 영화를 보고 생긴 한 가지 생각을 중심으로 머릿속에서 가지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다. ‘시간은 일정하게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영화에서 시간은 중력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데, 우리 주변에도 어머어마한 중력과 같은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중략)

②시간과의 밀고 당김은 긍정적인 마음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수업 5분전 바뀌지 않던 신호등은 다음부터 여유롭게 오면 빨리 바뀌줄테니 그리하라는, 나를 가르치는 신호를 줬던 것이며, 한평생 같던 50분은 시험치려면 공부할 것도 많을텐데 50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50분의 의리였을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은 항상 나를 챙겨주고 배려해 주는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내 머릿속 ‘시간’의 씨앗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시간’이라는 어린 나무로 자란 것 같았다. 시간이 빨리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을 내가 원하는, 길거나 짧은 시간으로 만드는 중력 같은 힘은 바로 마음의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③이런 생각이 있는 후의 어느 날, 내 친구가 일을 마치고 와서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하나 해줬다. 일하는 서점에 8-9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귀여운 아이가 카운터에 오더니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서점 몇 시까지 해요?”

“늦은 9시까지 해요.” 그 다음 대답이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우와, 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 아무 기준없이, 순수하게 감사해하는 아이의 밝은 마음, 이 마음이 나 역시 웃게 만들었다. (후략)

위 학생은 영화를 본 경험을 토대로 시간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다른 경험과의 관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를 본 경험을 ①문단에서는 보통의 글쓰기와는 달리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단편적인 사건이나

줄거리의 나열을 벗어나 있다. 영화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영화와 관련된 시간이라는 화두에 집중하고 시간에 대한 자신의 기존 인식과 정서에 방점을 두고 시간에 대한 의미적 차원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다. ‘시간은 일정하게 가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나 ‘영화에서 시간은 중력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데, 우리 주변에도 어떠한 중력과 같은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발문은 시간은 일정한 흐름으로 동일하게 지속되는 물리적 흐름이라는 학생 자신의 기존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만일, ‘시간’이라는 수필 제재를 토대로 ‘시간을 아껴쓰자’, ‘현재의 시간을 토대로 미래의 시간을 알차게 계획하자’라는 식의 교훈적 내용으로 글을 구성했다면, 평범한 차원의 글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의미 부여와 구성’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기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인식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시도되는 ‘의미 부여’가 ②문단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험공부와 신호등과 관련된 시간 경험에 있어서도 학생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일반적 상식 차원의 시간 관념을 벗어나 ‘상대적 시간의 흐름’이라는 재해석된 의미 부여의 틀 내에서 경험을 글 속에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수필 갈래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경험을 토대로 글쓰이의 개성적 인식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미 부여의 과정은 학생들의 경험에 기존의 인식을 벗어난 학생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개성적 인식을 부여하기 위한 단초가 되며,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치롭게 여기며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③문단에 언급되고 있는 아이와 관련된 경험은 학생이 경험 속에서 재발견한 시간 관념을 토대로 경험을 해석한 사례에 해당한다. 어린 아이의 평범한 반응을 학생 자신이 발견한 시간에 대한 인식으로 재해석하고 일반화함으로써,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화와 관련된 경험은 시간과 관련된 기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단초로서의 것이었다면, 시험 공부와 신호등과 관련된 경험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에 확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마지막에 거론된 아이와 관련된 간접경험은 시간 관념에 대한 인식의 재발견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전개와 배열 과정은 ‘구성’적 차원의 의도적 수행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은 기존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열하기 위해 적절히 경험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구성적 차원’의 점검도 동시에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유사성을 가지는 경험을 무의미하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 제기’와 ‘입증’, ‘일반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학생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를 경험의 구체적 배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좋은 수필의 요건을 일반화해서 언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작가로서의 수필 쓰기와 학생 자격으로 수필 쓰기에서 성취 가능한 목표를 동일시하거나 단순화해서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수필

이 문학인 이상, 경험을 통한 새로운 인식의 발견이라는 내용적 차원의 신선함의 추구와, 구성의 개성적 성취라는 형식적 측면의 실천적 모색은, 수필의 문학다움을 완성시키는 요체가 될 것이라 본다.

[학생글4]

①(전략) 다행히 진학한 고등학교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곳이었고, 비록 소심해져버린 성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무난하게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동안에 꽤나 공부에 도가 텅던 까닭인지 학교에서 좀 한다는 학생들을 모아서 자습을 시키는 공부방에 톡걸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도시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렸던 곳인지라 밤이 되면 주변이 생각보다 캄캄해졌다. 그래서 3학년이 되어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책가방을 메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는 주변이 온통 먹으로 칠해놓은 듯했다.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 때의 장면이 있다.

②가장 안쪽에 위치한 3학년 건물을 나서면 보이는 캄캄한 운동장,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몇몇 교실, 멀리서 정문을 밝히고 있는, 외롭게 서 있는 침침한 주황빛의 가로등이 보인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어둠을 들이 마시는 것 같은 뻑뻑한 밀도의, 상쾌한 공기를 마신다. 캄캄한 교실과는 다르게 확 트인 운동장을 건다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방이 당기는 힘 때문에 고개가 젓혀진다. 그동안 학원이니 뭐니 하면서, 하늘이 막힌 도심에서 생활하다보니 볼 기회가 없었던 밤하늘이 보인다. 별들이 도시 주제에 제법 빛나고 있다. 웬지 밤하늘은 낮의 하늘보다 깊어 보였고, 깊은 밤하늘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자니, 밤하늘이 내 마음이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중략)

③**밤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많은 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묘한 위안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적에 우주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이 된 지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드물어졌다. 23살밖에 안 된 주제에 삶을 말한다 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는 게 즐겁다. 하지만, 지금 거의 반 오십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배는 더 남았다. 그리고 힘든 시기는 언젠가 다시 나에게 안부를 물어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온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위 학생의 글을 놓고 의미 부여와 구성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①문단은 밤하늘을 본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 밤하늘의 별이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 왔던 전제 조건들에 대한 언급이다. ②문단을 통해 밤공기의 신선함과 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별의 묘미, 그리고 그것들이 안겨주는 아름다움과 감흥으로 인해 밤하늘과 자신의 마음을 동일시하는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 ①문단은 ②문단에서 소개된 밤

하늘의 강렬한 인상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단 전개를 위해 학생이 구성적 장치에 세밀한 검토를 미리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느닷없이 ②문단의 핵심 내용이 밤하늘에 대한 정서적 감흥을 언급한다면 그러한 서정적 체험이 독자들에게 쉽게 공감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②문단에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교묘하게 교차되고 있다. 밤공기와 밤하늘에 도취되어 정서적 몰입을 이루는 장면에서는 현재 시제가 쓰였고 그러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차원에서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제의 변화를 통해 학생은 자신만의 독특한 구성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①문단과 ②문단이 과거 밤하늘과 관련된 자신의 서정적 경험을 회고적 형태로 기술하고 있다면, ③문단은 밤하늘에서 얻었던 정서적 동일시의 근원을 나름대로 일반화해서 언급함으로써 어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 경험을 곁들임으로써 밤하늘에서 느꼈던 정서적 교감을 단편적 경험 차원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경험을 통해 재발견한 삶의 가치를 학생 자신의 삶 전체로 옮겨와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밤하늘이 아름다웠다’라는 서정적 차원의 정서를 기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별이 빛나는 이유에 대해 재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고난 속에 빛나는 희망’이라는 삶의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자기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에 해당하며, 이를 학생은 도입 문단의 제시, 시제의 혼용, 어조의 변화, 과거와 현재적 삶의 교차라는 구성적 방법을 통해 글쓰기의 효율성을 얻고자 하고 있다. 수필 쓰기가 매력적인 것은 글쓴이의 개성적 인식을 독특한 구성적 장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 학생의 글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 부여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용한 구성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3. 상위인지 전략의 활성화

글쓰기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 ‘상위인지’에 대한 것이다. 자신의 글쓰기를 계획, 글쓰기, 고쳐 쓰기의 전 과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해 나가는 자기중심적 수행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글5]

①①나는 요즘 언제 짜릿하고 가슴 뛰고 즐거웠다고 느꼈을까 생각해 보았다. 대학교 입학 후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 클럽에 가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커다란 비밀을 몰래 이야기할 때? 너무나 ①유홍에 몰들고 다른 사라의 이야기로 대화의 꽃을 피웠던 검은색 기억들뿐이었다.

②㉔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으로 기억한다. 포장지에 ‘윈터’라고 적힌 달콤한 초콜릿을 사먹곤 했는데 그 당시에 천원이 조금 넘었으니 매우 비싼 초콜릿이었다. 언니 용돈과 내 용돈을 합쳐서 하나를 사면 공평하게 먹어야 하니까 밥 먹고 하나씩, TV 보면서 하나씩 먹었다. 아주 감칠맛 나게……. 그렇게 아끼고 아껴 먹던 초콜릿이 제일 생각날 때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이다. “언니 우리 초콜릿 하나씩 먹을까?” “안돼, 양치질 또 해야 한단 말이야.” “딱 하나만 먹고 비밀로 하고 자면 되지?” “그럼 엄마한테 비밀이다.” 그렇게 ㉔엄마 ‘몰래’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초콜릿 껍질을 숨길 곳을 찾아 헤매었다. (중략)

③지금은 천원이 넘는 초콜릿을 사먹어도, 엄마 몰래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에 짜릿하고 즐겁지도 않다. ㉔자그마한 일에도 짜릿함을 느끼고 하루 종일 행복했던 내 어릴 적 하늘색 기억을 지금은 느낄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보다 그때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고 감사할 뿐이다. ㉔나는 오늘도 하늘색 기억을 꺼내본다.

위 학생의 글은 ①문단에서 ③문단까지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경험과 자신의 가치 인식을 대응시켜 감을 볼 수 있다. ①문단의 ㉔은 흥미나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경험에 대한 물음이다. 경험의 신선함 여부에 대한 물음이라기보다 경험에 대한 학생 자신의 정서와 인식에 대한 반문인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㉔과 같이 경험에 대한 무감각한 자신의 반응에 대한 확인으로 끝을 맺는다. 자신의 현재적 삶과 관련해 자기의식이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정서적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분명 ‘상위인지 전략’을 활성화해서 글을 써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의식 세계를 들여다 보려하고 그 의식의 실상을 점점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작업이 상위인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문단은 학생의 현재적 경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의 무감각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되는 경험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유치원 때의 경험을 언급하기 위해 ㉔으로부터 시도되는 경험 내용은 ㉔과 같이 설렘과 긴장, 순수한 떨림이 있는 정서와 결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행동 묘사, 정서적 반응에 집중한 기술 등으로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문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②문단은 ①문단에서 학생 스스로 자문한 현실적 권태와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조절을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경험 진술인 것이다. 아울러 ①문단이 학생의 심리를 지시적 차원에서 요약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②문단에서는 ①문단과는 상반된 정서를 함축한 경험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생은 분명 내용적 측면에서의 자기 사고와 정서의 흐름을 적절히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글을 쓰려고 하는 상위인지 전략을 활성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표현과 구성적 측면에서도 문단 간의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려는 상위인지를 가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적 인식에 대한 기술, 이에 반하는 경험 내용의 언급이라는 내용적 측면의 변화를 통해 글의 의도를 명확히 하려는 자기 점검과 조절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적 차원에서 표현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문체를 다변화하려는 시도 역시 자기 글에 대한 인식과 흐름을 조정하려는 사고가 개입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③문단은 매사에 무기력하고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을 언급하면서도 과거의 설레었던 추억을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학생의 심리적 적극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과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은 자신의 현실적 삶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이를 글로 표현해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역시 글쓰기 과정에서 상위인지 전략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①문단과 ③문단에서의 학생의 인식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①문단에서 현실적 자기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②문단에서 그러한 인식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③문단에서는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을 토대로 ②문단에서 언급한 과거의 경험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적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체 문맥과 표현,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고 이를 조절해 나가려는 상위인지 전략이 적극 활용되었을 때 가능한 글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학생글6]

①내게 있어 도시는 자연과 마찬가지로이다. 자연과 도시는 다르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의 도시, 더구나 도시에서 태어난 나의 도시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자연과 형제이다. (중략)

②㉠[자연에서는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추수가 끝난 논밭의 까치 날개짓 소리, 늘 어지는 오후 여물을 썩던 황소의 울음소리, 끝도 없이 떨어지는 하얀 폭포소리,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바람에 춤추는 소리, 풀벌레의 딱딱거림과 소나기 소리가 화음을 이룬다.] ㉡ [도시에서는 아득히 들려오는 학교 안의 떠드는 소리, 차들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림, 시계의 짹짹거림, 노을 지는 놀이터의 아이들의 웃음소리, 조용한 교실에서 연필이 비처럼 부딪히는 소리가 있다.] 누군가는 이 소리들을 도시의 소음이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도시의 소음을 사랑한다.

③도시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과 추함,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조화도 있으며 경쟁도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도시 자체가 스스로 그러한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자본을 통해 자연을 빌리거나 구매하는 것보다 도시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위로 받는 것이 더욱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이지 않을까?

위 글의 학생은 ‘자연’과 ‘도시’를 대비시키면서 도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펼쳐 보이고 있다. 우리는 흔히 현실적으로는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관념적이고 이상적 차원에서는 늘 자연을 동경하곤 한다.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위 글의 학생은 문학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 차원의 자연이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의 도시와 그 도시가 갖는 속성,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바람으로서의 도시를 언급하고 있다. ①문단에서 학생은 도시와 자연의 차별을 부정하고 그 둘 간의 친연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를 근대문명과 자본의 부산물이라고 폄하하는 가치에 대한 학생 자신만의 독자적인 안목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학생은 ②문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소리에 반해 도시의 소리를 흔히 소음이라 규정한다. 하지만 학생은 자연의 소리를 열거하고 그 하나하나의 가치를 거명한 것처럼, 도시의 여러 소리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나열과 압축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면서 ③문단에서 적시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학교 안의 떠드는 소리’와 ‘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단순한 소음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 학생의 지적처럼 그러한 소리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 만들어 낸 소리이기에, ‘아름다움과 추함’, ‘따뜻함과 차가움’, ‘조화와 경쟁’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들이 공존하는 소리일 수 있는 것이다.

도시의 소리들이 소음으로 치부되더라도 또한,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일지라도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자연친화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가치롭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학생의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인식은 상위인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과 도시의 대비, 그리고 도시가 갖는 가치를 자기 방식으로 사유하고 표현하려는 사고 과정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수필이 문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내기 위해, 자연과 도시를 대비시키고자 하는 전개 방식은 물론, 다양한 사고와 정서 유발이 가능한 구체적 대상의 나열이라는 표현법을 구사한 것 역시 자기 문체에 대한 점검과 조절 행위의 결과로 볼만 하다.

위 글의 학생은 비문학적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이고 강한 어조의 자기 논리에 대한 입증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물을 통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소리와 도시의 소리를 환기시키게 하며, 소음으로만 여겼던 도시의 소리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예찰과 바람직한 도시의 소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에 대한 인식의 새로움과 그것을 표현하는 전개의 묘미가, 학생 자신의 삶과 주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구성의 방식에 대한 상위인지 작용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하겠다.

IV. 마무리

수필 쓰기는 경험과 인식이 재발견, 그리고 그것의 효과적인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모범적인 수필 쓰기를 감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차원의 수필 쓰기에서 도입할 수 있는 교육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가치 있는 경험의 발견’, ‘의미 부여와 구성’, ‘상위인지 전략의 활성화’ 이 세 가지를 핵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수행 한 후 학생글을 분석함으로써 방법적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가치 있는 경험의 발견’ 단계는 학생의 삶에 주목하게 하고 경험을 수필의 소재로 활용함은 물론 경험의 서열화와 나열을 통해 글의 구성의 계획하는 데 주력한 방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편적인 경험의 나열이 문학으로서의 수필이 될 수 없기에 경험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가치와 정서를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경험을 묶어 엮어서 글 구성을 위한 단초로 삼고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사실 모든 경험이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경험이 좋은 수필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생각과 정서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경험을 환기하고 경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는 작업은 수필 쓰기의 준비 단계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의미 부여와 구성’은 ‘가치 있는 경험의 발견’에 이어 수행해 볼 수 있는 수필 쓰기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경험의 의미를 재고해 보자는 의도가 중요한 요체이며 경험의 나열을 효과적인 구성 방식으로 재편해 보자는 것이다. 하나의 경험 사건이라 할지라도 상황의 변화나 자신의 인식, 관점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흐름의 변화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의 글이 되기에 내용과 형식상의 재고찰을 비중있게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동일한 경험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생각을 개선과 자기만의 가치 인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면 수필 쓰기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성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인지 전략의 활성화’는 자기식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학생 스스로 글쓰는 방법과 과정을 조절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글쓰기는 문제해결 과정이면서 사고의 과정, 상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글을 쓰는 행위와 결과로서의 완성글에 주목하기보다, 글쓰는 행위와 과정 자체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의 글쓰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에, 그러한 점에서 상위인지 전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의 안내와 그에 입각한 글쓰기의 수행은 학생들의 수필 쓰기 역량을 확산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가은아(2011), 쓰기교육에서 상위인지 조정전략의 지도방법, 청람어문교육, 4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강신재 외(1993), 좋은 글, 잘된 문장은 이렇게 쓴다, 문학사상사.
- 구인환 외(1998a), 문학 교수 학습 방법론, 삼지원.
- 구인환 외(1998b), 문학교육론, 삼지원.
- 김승광(2012), 수필쓰기지도에서 얻은 약간의 체득, 중국조선어문, 181집,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김유미(1996), 자기조절전략 수업과 상위인지가 아동의 작문수행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34권 5호, 한국교육학회.
- 김중신(1997),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 김진호(2014), 텍스트를 활용한 쓰기 교육방안 모색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융합인문학, 2권 1호, 한국융합인문학회.
- 류수열 외(2014), 문학교육개론Ⅱ, 역락.
- 신윤경 외(2015), 학습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쓰기 상위인지 전략 사용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권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신재기(2007), 디지털시대 수필쓰기에 반영된 사이버리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신재기(2009), 수필과 시의 언어, 박이정.
- 이오덕(1996),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보리.
- 이재승(2003),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 정덕현(2015), 상위인지 조정과 힘글쓰기 전략을 활용한 교육연구, 인문학연구, 99집,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 정영길(2002), 문예창작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 허만욱(2009), 다매체 시대 수필문학의 장르적 정체성과 발전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26집, 우리문학회.
- Flower Linda(1993), 원진숙 외 옮김(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동문선.

Abstract

A Study on Essay-Writing Education Method

Oh Jeong-hun

This study tried to bring experience arousal, semantic assignment, and the importance of the composition & mega-cognition strategy into focus as a way of essay-writing. An essay is the writing, in which a writer's individual perception is reflected, and also has an inclination as literature at the same time, so the composition as an expression mode is the item which should be emphasized as well. Besides, writing is not limited to experience enumeration at a passive level, but a student's regulation & checking process at a voluntary level on his/her own is considered important; from this aspect, this study considered the mega-cognition concept, which is putting emphasis on perception and adjustment of students' writing process, to be a matter that should be handled essentially in essay-writing education as well. The whole experience could become a material of an essay, but it's almost impossible to draw the whole experience into an essay; moreover, unless a writer's unique cognitive subtlety discovered in experience is materialized, an attractive essay cannot be created, and that's why arrangement of sequencing & a new understanding of experience, and arrangement of a strategy for its efficient composition belong to essential educational contents. Hereupon, this study is intending to put significance to its concentration on arrangement of the actual plan for essay-writing, and verification of the effect through students' writings by applying an educational method.

Key words: Essay-Writing, Experience, Semantic Assignment, Composition, Meta-Cognition

논문 투고일: 2016. 11. 10.

심사 완료일: 2016. 12. 08.

게재 결정일: 2016. 12. 10.